

### 경기북부센터

## “범죄피해자지원 위한 제2회 사랑나눔 대 음악회”

### 피해자와 후원자 함께해 음악 통해 고통 나눠 수익 전액 범죄피해자 위한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



▲홍중진 교수 지휘로 대진 메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고 있다.

(사)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는 10월 1일 저녁 7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제2회 사랑나눔 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자선 음악회에는 대진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인 홍중진씨가 지휘하는 대진 메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테너 정중근, 소프라노 임경애, 피아노 이진이, 색스폰 강신태, 현광철 등이 출연하여, 가을밤 정취에 어울리는 그리운 금강산, 사랑, The Sound Of Music 등의 곡으로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음악회 출연자이자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이진이 교수가 매 곡마다 알아듣기 쉽도록 해설을 곁들여 주어, 참여자들이 더욱 쉽고 친근감 있게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제2부지사를 비롯하여 김병수 의정부지검장,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범죄피해자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및 음악애호가 1000여명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특히 범죄피해자 가족들도 센터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음악을 통해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송한근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후원자가 함께 자리를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고통을 나누는 사랑나눔이야말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선물일 것”이라며 음악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음악회를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전액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 범죄피해 당한 이주 근로자 피해자 지원

### 이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인권보호에도 힘쓸 터

경기북부센터는 5월 1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송한근 이사장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교포로 국내 취업 중 미상의 피해자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중인 전모씨의 부인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피해자 전씨는 2009년 4월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울산, 충남 당진 등의 공장과 공사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2010년 3월부터 경기도 구리시 등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을 하던 중 4월 12일 직업 안내소 화장실에서 복면을 한 괴한의 칼에 왼쪽 팔과 옆구리 등 5군데를 찔려 큰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중이다. 안타깝게도 범인은 아

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 이후 구리 경찰서의 안내로 피해자와 접촉한 경기북부센터는 피해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고, 당장의 수술비와 입원비 부담이 곤란하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전씨의 부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북부센터는 지난 7월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하였던 베트남신부 살인사건을 비롯해 최근 들어 이주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이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범죄피해지원과 인권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수기 사무국장이 피해자기족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시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 춘천센터

## 피해자지원 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 시·군·이(통)장 협의회 관계자 참석

(사)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윤현중)은 2010년 한 해 동안 춘천지검 관할 구역 내 이장회의 시 참석하여 피해자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춘천센터는 지난 해 12월 29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의 초기 접근의 신속성과 효과적인 피해자의 회복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시·군·이(통)장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을 맺은 바가 있다.

올해에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시책 설명회는 협의회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 관내 범죄피

해 발생 시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춘천 사북면을 시작으로 실시된 시책 설명회는 현재까지 14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미실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춘천센터 관계자는 “관할 지역에 면, 리 단위로 구성된 지역이 많이 있는 만큼 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구석구석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센터 범죄피해자 병원치료비 및 자립기금 지원 2005년부터 피해자 306명에 총 2억4천600여 만원 전문상담위원 연결하는 '사랑의 끈' 통해 회복 도와



▲이순국 이사장이 지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은 지난 6월 22일 센터 상담실에서 이사장과 수원지검 박영철 검사장, 센터 사무국장인 참석하신 가운데 4건의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총 16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지원금을 전달 받은 피해자는 아간에 피한에게 납치되어 감금협박을 당한 피해자, 초등학교 2학년부처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구타 및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같은 학교 후배가 휘두르는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지적장애 고교생, 조선족 승객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택시 기사와 그 싸움을 말리다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대학생 등으로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생계 보조금, 의료비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전

달했다.

수원센터는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적장애 소년의 고등학생에게는 장애진단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친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협력 병원과 연계하여, 심리치료와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하루 속히 범죄피해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 도움 예정이다.

한편 수원센터는 2005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강력범죄 206건, 306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246,560,762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센터의 전문 상담위원과 피해자를 1:1로 연결하는 '사랑의 끈'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사랑의 끈' 프

로그램은 멘토로 지정된 전문 상담위원이 주기적으로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화와 상담을 통해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 문

화 활동 동행, 학습지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사랑의 끈' 지원 후기 및 피해자 후기

##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났다!

유가족 윤○○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진 것 없이도 법안이 살아있는 소리들으며, 소박하게 살아온 친정에 큰 격을 갖는 여동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여동생은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여운 아들 두 방울을 남겨놓고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저의 철수가 넘으신 부모님은 다섯 자녀 모두 출가하시고 조용히 살고 계셨었지요. 아들에게 7.8살의 손주를 맡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대한 나무처럼, 그 당시는 어수선하고 어리둥절하며 이게 맞게 해결되고 있는지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였으나, 지나고 보니 착착 때맞춰 행하시는 여러 도움을 통해 가지런히 정돈된 느낌입니다.

어린 두 아이와의 동행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의 소속으로 네 식구가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마지막 우리 손을 잡아주시던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실질적 도움을 이처럼 많이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먼저, 가정변화로 상처받았을 아이들의 마음을 심리치료, 놀이치료로 인내해 선생님들의 방문으로 돌보아주셔서 감동했고, 상담이 끝났을 때 예쁜 사진첩까지 만들어 주시며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작은 아이를 위해 센터에서 전문선생님을 보내주셨고, 추운겨울 먼 길 방문하여 배움을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무례함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따뜻

하게 위로하신 미술치료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형편을 헤아리시고 생각지도 않은 생계비 500만원과 한 달에 한번 씩 김치, 고기, 과일, 학용품까지 사다주시는 센터 선생님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방학을 하여 불필요를 걱정하였던 부모님을 위해 센터에서 8월 동안 슬퍼하지 배우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면서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아예 다 갚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아찔에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 받아쓰기 못하겠다, 영어 수학 등 어렵다, 등의 이유로 학교하기를 거부하기도 하는 일에 부모님들은 답답하고... 우울함에 참가되는 삶의 압박에 안타까움으로 주름과 한숨에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버릇도 예의도 모르고 할말, 안 할 말 모두 쏟아버리는 골때리는 성격 가진 아이들에게 필요 한건 끝없는 인내와 사랑의 가르침뿐... 이 힘든 일상에서도 수시로 전화주시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피곤길에 들려주시는 센터 선생님이 부모님에게는 크나 큰 위안거리이자 버팀목이 되어 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하는 바람 뒤에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내 가시가 어떻게 다듬어 지는지 고난 뒤에 오는 결승과 운유로 채워져서 태양보다 더 밝은 은혜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괴로웠던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과 그 불쌍한 두 아이에게 앞으로는 기쁜 일 만 기쁨을 바라봅니다.

## 청주센터

# 범죄피해자 초청 간담회 개최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모색



▲피해자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영)와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수남)은 6월 25일 지검 소회의실에서 전달

검사와 청주센터 사무국장 및 분과위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범죄 피해 이후 국가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은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하여, 수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이날은 범죄피해자 10명이 참석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소지한 열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한쪽 다리를 절단하여야 했던 피해자의 아버지와, 청주 일원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도 포함이 돼 있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모두 범죄 피해 이후에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 받던 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으

로 지원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센터 관계자들과의 오찬이 있었으며, 오찬 이후에는 청사 견학을 통해 검찰에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부소 상담위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청주센터는 향후 지속적인 피해자 관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한 번의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부산센터 더위야 물렸거랏! 자연 속 1박 2일!

###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멘토링 여름 캠프 다녀와

(사)부산 범죄피해지원센터 (이사장 구정희)는 범죄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피해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살인 유가족, 강도,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자들의 멘토로서 활발히 활동 중

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멘토링은 월 2회~3회 정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월 1회 멘토링에 참가하고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 활동인 '함께해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 방학 기간에는 경남 합천의 자연학교로 '더위야

물렸거랏! 자연 속 1박 2일!'이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옥수수 따기, 풍간체험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소통하며,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부산센터는 앞으로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피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대나무통으로 만든 물총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다.

(사)부산범죄피해지원센터 [www.bcvcr.or.kr](http://www.bcvcr.or.kr)



▲ '청소년 특수강간'을 주제로 2차 회의를 한바 있다.

부산센터는 6월 23일 부산지검에서 부산지검, 부산 성폭력상담소와 공동 주관으로 제 3차 피해자 지원 전문가 사례회의가 사

## 부산센터·부산지검·성폭력상담소 합동 제3차 피해자 지원 전문가 사례회의 가져

회의를 개최했다.

피해자 지원 전문가 사례회의는 사건 지원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접근과 더 나은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산지검과,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족이 되었으며,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재 3회에 이르고 있다.

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1차 회의 시에는 '아동 성폭력' 2차 회의 시에는 '청소년 특수강간'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으며, 이

번 3차 회의에서는 '친족에 의한 강간과 피해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해자 지원의 방향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센터 관계자는 "전문가 사례회의는 검찰청과 경찰청을 비롯하여 부산시 지자체의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각종 의견들은 부산센터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울산센터

# 울산지방경찰청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위한 협약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울산 범죄피해지원센터 (이사장 김광태)는 9월 9일 11시 울산지방경찰청 1층 회의실에서 김광태 이사장과 김수정 청장, 경찰청 및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사건 조사 중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범죄피해지원 의뢰서』

를 작성하여 센터에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울산센터는 경찰청을 통해 의뢰된 피해자들에게 대해 상담 및 경제, 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결과를 경찰청에 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에 동의했다.

김수정 청장은 "형사절차에 있어 피의자의 인권은 끝목할 만큼 법적·제도적 향상을 이뤘으나,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태 이사장은 "경찰청과 협력 하에 소외된 범죄피해자들이 없도록 더욱 피해자 발굴과 보호·지원에 힘을 쓸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범죄피해자 격려의 장 자조모임

### '묻지마 범죄' 등 피해 가족 10세대 초청

울산센터는 8월 25일 센터 사무실에서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 피해자 및 가족 10세대를 초청하여 자조모임을 가졌다.

이번 자조모임은 범죄피해 이후 홀로 상처와 고통에 맞서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리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속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범죄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모임에는 신원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치료보상 등의 문

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울산센터는 그 동안 인지부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며, 자조모임 등을 통한 피해자 회복에도 부단히 힘을 예정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며 자조모임을 갖고 있다.

(사)울산범죄피해지원센터 [www.ucvcr.or.kr](http://www.ucvcr.or.kr)